한국심리학회지 : 임상
Th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015, Vol. 34, No. 1, 77-102

한국판 성격조직화 척도(IPO)의 신뢰도 및 타당도에 대한 연구

김 영 란 이 영 호†

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성격조직화 척도(Inventory of Personality Organization: IPO)(Kernberg & Clarkin, 1995; Clarkin, Foelsch, & Kernberg, 2001)의 주요 3개 하위 척도(원시적 방어기제, 정체감 혼란, 현실검증력 손상)에 대한 심리측정적 속성을 검토하였다. 대학생 477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IPO와 함께, 정적 정서 및 부적 정서 척도(PANAS), 공격성 척도(AQ-K), 한국판 역학연구센터 우울 척도(CES-D), 상태-특성 불안 척도(STAI), 정서곤란 척도(DERS-K) 등의 정서 관련 척도와 대상관계와 애착의 질을 반영하는 성인애착 척도(ASS), 그리고 각 하위 척도와 관련이 있는 개념을 측정하는 세 가지 척도, 즉 방어유형 측정 척도(DSQ), 자기개념 명료성 척도(SCS) 및 자기안정성 척도(SSS), 분열형 성격장애 척도 단축형(SPQ-B)을 실시하였다. 또한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측정하기 위해 4주 간의 간격을 두고 일부 참가자에게 IPO를 재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IPO는 양호한 내적 합치도와 높은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보였다. 둘째,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IPO 주요 척도의 요인구조를 알아본 결과, 원시적 방어기제, 정체감 혼란, 현실검증력 손상의 3요인 모델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IPO와 관련 척도 간의 상관분석에서 IPO의 수렴타당도와 준거타당도를 지지하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넷째, IPO의 각 하위척도 점수를 기준으로 신경증적 성격조직화 집단, 경계선적 성격조직화 집단, 정신증적 성격조직화 집단의 심리정서적 특성을 비교한 결과, 심리정서적 특성에 있어서 유의미한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볼 때, IPO는 양호한 신뢰도와 타당도를 가진 척도인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어 : 성격조직화 척도(IPO), 신뢰도, 타당도, 심리측정적 속성, 확인적 요인분석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이영호 / 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지봉로 43 (역곡동) / Fax : 02-2164-4276 / E-mail : yhlee@catholic.ac.kr

www.kci.go.kr

정신장애 및 이상행동의 진단 및 평가에는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다. 하나는 정상과 이상을 질적으로 다른 것으로 구분하고 각 장애들이 각기 다른 범주에 속한다고 보는 범주적 진단체계(categorical diagnostic system)이며, 다른 하나는 정상과 이상이 양적으로 다를 뿐이며 각 장애는 공통된 차원이라는 스펙트럼에서 어느 위치에 존재하는가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는 차원적 진단체계(dimensional diagnostic system)이다. 성격장애에 대한 현재의 DSM 진단체계는 범주적 분류체계를 따른다. 그러나 최근의 성격장애 연구들은 성격장애에 대한 범주적 분류와 진단이 많은 문제를 가짐을 보여주었다(Krueger, Markon, Patrick, & Iacono, 2005; Livesley, 2003; Trull & Durrett, 2005; Watson, 2005; Widiger & Clark, 2000). 이러한 연구들에서 제시되고 있는 성격장애에 대한 범주적 분류체계의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각기 다른 성격장애로 진단되는 성격장애들 간의 공병(comorbidity)이 상당하다. 예컨대, 대부분의 성격장애 환자들이 하나 이상의 성격장애를 가지며, 하나만의 성격장애를 가지는 환자는 드물다. 둘째, 하나의 특정 성격장애로 분류되는 환자들 내에서 상당한 이질성이 존재한다. 셋째, 현재의 DSM 체계는 각 성격장애에 대해 여러 개의 진단기준을 제시하고 그 중에 몇 가지가 충족되면 해당 성격장애로 진단되는 분류체계를 채택하고 있는데, 이 기준점은 이론적 및 경험적 근거를 가지지 않는 임의적인 구분이다. 넷째, 성격장애의 진단이 성격장애라는 개념이 함의하는 시간적 안정성을 가지지 않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이에 따라 많은 연구자들은 범주적 분류에서 차원적 분류로 분류체계를 변화시킬 것을 제안해왔다(Millon, 2005; Saulsman & Page, 2004; Spitzer, First, Shedler, Westen, & Skodol, 2008; Trull & Durrett, 2005; Widiger & Samuel, 2005). DSM-5 위원회는 몇 차례의 초안 발표에서 성격장애에 대한 새로운 분류체계인 차원적 분류체계를 수용할 것이라고 밝혀, 어떤 정신장애들보다 성격장애 부분에 급진적인 변화가 있을 것임을 예고했다. 그러나 2013년 5월 최종적으로 출판된 DSM-5(APA, 2013)에서는 DSM-IV-TR(APA, 2000) 성격장애 진단기준이 그대로 성격장애 공식 진단으로 발표되었고, 새롭게 제안된 성격장애 체계는 Section III의 '새로운 척도와 모델(Emerging Measures and Models)' 부분에 포함되어 추후 보다 많은 연구가 필요한 대안모델(Alternative DSM-5 Model for Personality Disorders)로 밀려났다. 이러한 결정의 이유가 명확하게 제시되지는 않았지만, 성격장애에 대한 차원적 모델에서 차원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가 가장 큰 것으로 보인다.

성격장애에 대한 차원적 분류체계에서 차원이라는 것은 여러 성격장애를 포괄할 수 있는 핵심 개념을 함의한다. DSM-5(APA, 2013)는 성격장애의 핵심 개념 혹은 핵심 차원으로 진단기준 A에 자기와 관련된 두 가지 영역(정체성, 자기방향성), 그리고 대인관계와 관련된 두 가지 영역(공감, 친밀성)에서의 손상으로 나타나는 '성격 기능 손상(impairment of personality functioning)'이라는 개념을 제안한다. 더 나아가 성격 기능 손상의 평가를 위해, 손상도에 따라 네 가지 영역에서 어떤 양상을 보이는지 기술하는 '성격 기능 수준 척도(Level of Personality Functioning Scale)'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DSM-5에 제시되어 있는 성격 기능 수준 척도는 명확한 척도의 형태라기보다는 임상가들이 성격 기능의 손상도를 평가하기 위

www.kci.go.kr

해 참고할 수 있는 참조틀에 가깝다. 더욱이 성격 기능 손상이라는 개념의 이론적 배경도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이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도 제한이 많다. 이러한 맥락에서, Kernberg(1975, 1984)가 제안한 '성격 조직화(personality organization)'라는 개념은 성격장애 및 성격병리를 포괄하는 핵심 개념으로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이 개념은 자기 및 대인관계의 병리를 잘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론적 배경이 탄탄하고, 자기보고식 질문지와 구조화된 면담 등의 측정도구가 개발되어 있어 객관적인 측정이 가능하다.

성격조직화란 개인의 행동과 주관적 경험을 조직화하는 기저의 심리 정신적 구조로, 여러 가지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정서적 및 인지적 정신기능으로 정의된다[1]. 이런 의미에서 한 개인의 성격조직화는 그의 수많은 행동과 주관적인 정서적 및 인지적 경험들의 기저에 있는 일종의 원리이자 규칙이라고 할 수 있다[2]. Kernberg(1975, 1984)에 따르면, 성격조직화 및 심리구조를 형성하는 기본 요소는 내적 대상관계이다. 내적 대상관계는 타고난 정동적 기질 성향과 양육자와의 애착관계 양상에 의해 결정되며, 자기에 대한 표상과 대상에 대한 표상, 그리고 자기와 타인 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표상과 연결된 특정 정동 상태로 이루어진다. 내적 대상관계라는 기본 재료는 성격조직화의 여러 영역들을 결정하는데, 성격조직화의 하위 영역들은 정체감 통합, 방어기제, 현실검증력 손상, 도덕 기능, 성격의 경직성, 대상관계 등이 있다(Kernberg, 1984). 이 중 정체감 통합, 방어기제의 수준, 현실검증력 손상이 주요한 세 가지 영역이며, 이러한 영역들의 수준에 따라 성격조직화의 수준이 결정된다.

이 세 가지 영역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체감 통합이란 자기에 대한 표상에서나 타인에 대한 표상, 혹은 관계에 대한 표상에서 좋음과 나쁨이 잘 통합된 발달 상태를 가리키고, 통합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정체감 혼란의 결과는 정서 및 행동, 대인관계의 불안정성으로 나타난다. 둘째, 방어기제는 분열, 투사, 부인, 전능통제 등의 원시적이고 미성숙한 방어기제와 억압이나 취소, 반동형성 등의 보다 성숙한 방어기제로 나눠질 수 있는데, 이는 정체감 통합의 정도에 달려 있다. 정체감 통합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분열을 비롯한 원시적 방어기제가 우세하게 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현실검증력이란 "자기(self)와 비-자기(non-self), 혹은 심리내적 자극과 외적 자극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Kernberg & Caligor, 2005, p. 135)을 뜻한다. 현실검증력 손상의 결과는 정신증적 사고와 행동으로 나타난다. 이 세 영역에의 손상의 정도에 따라 성격조직화 수준이 결정되는데, 정체감 혼란, 원시적 방어기제, 현실검증력 손상이 모두 나타나는 경우는 정신증적 성격조

1) '성격조직화'와 '성격구조(혹은 심리구조)'라는 말은 혼용되어 사용되지만, Kernberg는 여러 가지 정신적 기능들이 통합된 것이 심리구조, 그리고 그 심리구조들이 통합되고 조직화된 결과물이 성격조직화라고 정의한 바 있다(Kernberg & Caligor, 2005). 그러나 Kernberg(1975, 1984)조차 여러 곳에서 두 용어를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다.

2) 성격조직화는 직접 관찰될 수 없고 행동이나 주관적 경험을 통해 추론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성격조직화라는 차원 혹은 개념을 통해 성격장애를 파악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외현적인 증상과 행동을 기초로 장애를 파악하는 기술적 진단(descriptive diagnosis)과 달리, 기저의 구조를 이해하려는 구조적 진단(structural diagnosis)이라고 일컬어진다.

www.kci.go.kr

직화(psychotic personality organization), 현실검증력의 손상은 없고 정체감 혼란과 원시적 방어기제만 나타나는 경우는 경계선적 성격조직화(borderline personality organization), 세 영역에 모두 문제가 없고 억압을 비롯한 성숙한 방어기제를 사용하는 경우는 신경증적 성격조직화(neurotic personality organization)로 분류된다[3]. 한편, 경계선 성격조직화와 경계선 성격장애는 각기 다른 개념으로, DSM 체계에서의 성격장애들은 대부분 경계선 성격조직화에 해당한다(Kernberg, 1984; Gunderson, Links, & Reich, 1991).

성격조직화를 측정하는 척도로는 자기보고식 성격조직화 척도(Inventory of Personality Organization: IPO)(Kernberg & Clarkin, 1995; Clarkin et al., 2001), 성격조직화에 대한 구조화된 면접(Structured Interview of Personality Organization: STIPO)(Clarkin, Caligor, Stern, & Kernberg, 2004; Stern et al., 2010), 임상가가 평정하는 측정도구인 성격조직화 진단 도구-I과 II(Personality Organization Diagnostic Form I & II: PODF-I & PODF-II)(각각 Digure & Normandin, 1996; Gamache et al., 2009)가 있다. IPO는 자기보고식 검사로 83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Kernberg(1975, 1984)의 이론을 반영하여, 원시적 방어기제(Primitive Defenses), 정체감 혼란(Identity Diffusion), 현실검증력 손상(Impairment of Reality Testing)의 3개 주요 척도와 도덕 가치(Moral Value), 공격성(Aggression)의 2개 보충 척도로 이루어져 있다.

IPO가 개발된 이후로 성격 조직화와 성격병리 간의 관계에 대한 여러 연구가 이루어졌으며(예, Arntz & Bernstein, 2006; Igarashi, Hasui, Uji, Shono, Nagata, & Kitamura, 2010; Lenzenweger, McClough, Clarkin, & Kernberg, 2012; Lowyck, Luyten, Verhaest, Vandeneede, & Vermote, 2013; Verreault, Sabourin, Lussier, Normandin, & Clarkin, 2014), IPO의 번안과 타당화 연구도 여러 나라에서 이루어졌다. Lenzenweger, Clarkin, Kernberg와 Foelsch(2001)는 원본 영어 IPO의 주요 3개 척도에 대한 심리측정적 속성을 확인했는데, 249명의 비임상집단을 대상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했다. 연구 결과, 3요인 모델(원시적 방어기제, 정체감 혼란, 현실검증력 손상의 3요인)의 적합도와 2요인 모델(원시적 방어기제와 정체감 혼란이 하나의 요인으로 통합된 모델)의 적합도가 모두 양호하게 나타났지만, 저자들은 높은 요인간 상관과 모델의 간명성을 고려하여 2요인 모델이 적합하다고 결론 내렸다. Ellison과 Levy(2012)는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1260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원본 영어 IPO 주요 3개 척도에 대한 요인구조 연구를 실시했다. 이 연구에서는 IPO 주요 3개 척도가 자기 및 타인 불안정성, 목표 불안정성, 행동 불안정성 및 정신증의 4개 요인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3) 정신분석적 입장에서는 전통적으로 '완전한 건강함' 혹은 '완전한 정상'은 현실에서 존재하지 않는 이상(ideal)이다. 따라서 IPO에서 신경증적 성격조직화 수준에 속하는 사람들은 보다 건강한 사람으로부터 보다 문제가 있는 사람에 이르기까지의 스펙트럼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최근에 Kernberg는 정상 성격에 대해 보다 분명한 개념화를 제시하고자 했는데(Clarkin, Lenzenweger, Yeomans, Levy, & Kernberg, 2007b), "신경증적 성격조직화"와 "정상 성격조직화"의 근본적 차이는 양적인 데 있다고 밝혔다. 둘 다 정체감 통합, 성숙한 방어기제, 양호한 현실검증력이라는 측면에서는 똑같은 구조적 특성을 가지지만, 정상 성격의 경우 신경증적 성격조직화에 비해 이 차원들에서 보다 높은 수준에 위치하고, 유연성이 높다.

www.kci.go.kr

밝혀졌다. IPO는 여러 나라에서 영어 이외의 언어로 번안되고 타당화되었다. Igarashi 등(2009)은 IPO 전체 5개 하위 척도를 일본어로 번안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총 83문항 중 40%를 줄인 후 원래의 5개 요인을 추출하였고,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이러한 요인구조를 확인하였다. Berghuis, Kamphuis, Boedijn과 Verheul(2009)은 정신과 환자와 비임상 집단을 포함한 표본에서 IPO 전체 5개 하위척도 네덜란드어판에 대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했는데, 전반적 정신병리, 현실검증력 손상, 공격성, 가학성의 4개 요인을 도출하였다. Smits, Vermote, Claes와 Vertommen(2009)은 대학생 411명을 대상으로 한 네덜란드어판 축약형 IPO의 요인구조에 대한 연구에서, Lenzenweger 등(2001)의 결과와 같이, 정체감 혼란과 원시적 방어기제가 하나의 요인으로 묶이고 현실검증력 손상의 다른 하나의 요인으로 묶이는 2요인 모델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한국판 IPO 3개 주요 척도의 요인구조를 검토할 것이다.

이에 더해, 본 연구는 IPO의 주요 3개 척도의 수렴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각 하위 척도가 반영하는 개념을 측정하는 기존의 척도들, 즉 방어유형 척도, 자기개념 안정성 척도, 정신증 척도들과 IPO 하위척도들 간의 관련성을 살펴볼 것이다. 또한, 성격병리와 관련된 것으로 알려진 외적 개념들과 IPO 간의 관련성을 확인함으로써, IPO의 준거타당도를 검토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IPO와 관련된 외적 개념들로 부정적 정동과 긍정적 정동, 불안, 우울, 공격성, 그리고 정서 조절의 어려움을 살펴보고자 한다. IPO에서 높은 점수를 나타내는 사람들은 심각한 성격병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심각한 성격병리와 정서적 문제와의 관련성은 많은 연구를 통해 알려져 있다. 심각한 성격병리를 가진 사람들은, 즉 IPO를 통해 경계선적 성격조직화 수준에 속하는 사람들은, 기질적으로 혹은 초기 관계의 어려움으로 인해 높은 수준의 부정적 정동과 낮은 수준의 긍정적 정동을 보이는 경향이 있으며, 불안에 대한 내성이 낮고 만성적인 우울감을 겪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Comtois, Cowley, Dunner, & Roy-Byrne, 1999; Kernberg, 1975, 1984). 또한 초기 삶에서 양육자와의 애착의 문제는 정서 조절 기제의 발달을 어렵게 하는 것으로 밝혀져 왔다(Clarkin, Lenzenweger, Yeomans, Levy & Kernberg, 2007; Fonagy, 2000; Herr, Rosenthal, Geiger, & Erikson, 2013; Zanarini & Frankenburg, 1997). 특히, Kernberg(1984)의 이론에서 공격성은 원시적 방어기제와 정체감 혼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공격성이 우세하면, 심리적 생존을 위해 내면의 선함과 악함을 적극적으로 분열시켜서 악함을 외부로 투사하는 과정이 필수적이 되고, 그 결과 좋음과 나쁨이 통합되지 못해 정체감 통합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Kernberg & Caligor, 2005). 따라서 IPO의 주요 3개 척도가 높은 부적 정동, 낮은 정적 정동, 정서 조절의 어려움, 그리고 불안, 우울, 공격성과 상당한 관련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IPO를 통해 성격조직화 수준을 분류하고 각 집단의 심리정서적 특성의 차이를 알아봄으로써 구성타당도를 확인할 것이다. 신경증적 성격조직화, 경계선적 성격조직화, 정신증적 성격조직화는 각각 성격의 발달 수준을 의미하므로, 신경증적 성격조직화에서 더욱 건강한 측면이 나타나고 경계선적 성격조직화, 정신증적 성격조직화 수준으로 갈수록 부적응적인 측면을 보

www.kci.go.kr

일 것으로 예상된다.

방 법

연구대상

수도권 소재 대학과 경기도 및 강원도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 수집에 참여한 총인원은 477명이었고, 응답의 성실성이 의심되고 결측 문항이 많은 11명의 자료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466명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자들 중 남자는 160명, 여자는 306명이었고, 평균연령은 22.18세(SD=6.53)였다.

측정도구 및 절차

수업시간을 이용하여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연구참여자 중 119명에 대해서는 검사의 재검사 신뢰도를 측정하기 위해 첫 번째 검사 후 4주 후에 다시 한 번 측정하였다.

성격조직화 검사(The Inventory of Personality Organization: IPO)

성격조직화 검사(IPO)는 Kernberg(1975, 1984)의 성격 조직화 이론과 관련된 구성개념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자기보고식 질문지이다(Kernberg & Clarkin, 1995; Clarkin et al., 2001). IPO는 총 83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앞서 언급했듯, 3개의 주요 척도와 2개의 보충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3개 척도는 원시적 방어기제(16문항)('나는 존경하는 사람들의 결점을 보지 못한다는 말을 듣는다', '나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선하거나 악하거나 둘 중 하나이며, 그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드물다고 생각한다', '내가 주의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나를 이용하는 경향이 있다'), 정체감 혼란(21문항)('직장이나 학교에서의 내 행동과 비교해 볼 때, 집에서의 나는 다른 사람인 것 같다', '내 삶의 목표는 해마다 자주 바뀐다', '사람들과 친해지고 나면, 그들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어 놀란다'), 현실검증력 손상(20문항)('나는 아무도 보고 듣지 못하는 것을 보거나 들을 수 있다', '내 소망이나 생각이 마술처럼 실현될 것이라고 느낀다')의 총 57문항으로 되어 있고, 보충 2개 척도는 도덕 가치(11문항, 일부 문항은 주요 척도와 중복됨), 공격성(18문항)으로 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2='거의 그렇지 않다', 3='때로 그렇다', 4='자주 그렇다', 5='항상 그렇다')로 이루어져 있다. 척도 번안 과정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다. 원저자들의 허락을 받아, 본 연구자와 영어에 능통한 비심리학 전공 대학원생 1인이 IPO 원문항을 일차적으로 번역하였고, 그 후 전문 번역가에게 이 번역본의 역번역을 의뢰하였다. 다음으로, 원본 척도와 역번역된 척도를 비교 검토하여 일치하지 않는 문항들은 본 연구자와 임상심리전문가 1인이 재번역하였다. 최종적으로, 이중언어자(비심리학 전공) 1명, 임상심리전문가이자 임상심리학 박사과정생 3명, 임상심리학 석사과정생 2명에게 완성된 번역본을 실시하여 문장의 의미가 분명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피드백을 받았고, 이를 토대로 문장을 다듬어 최종본을 완성하였다. IPO의 심리측정적 속성들은 여러 연구에서 확인되었다(Berghuis et al., 2009; Ellison & Levy, 2012; Igarashi et al., 2009; Lenzenweger et al., 2001; Smits et al., 2009). Lenzenweger 등(2001)의 연구에서 보고된 내적

www.kci.go.kr

합치도(Cronbach's α)는 다음과 같았다: 원시적 방어기제, .81; 정체감 혼란, .88; 현실검증력 손상, .88. 이 연구에서 4주 간격으로 얻어진 검사 재검사 신뢰도는 다음과 같았다: 원시적 방어기제, .72; 정체감 혼란, .78; 현실검증력 손상, .73.

방어유형 측정도구(Defense Style Questionnaire: DSQ)

방어기제를 측정하기 위해 Bond, Gardner, Christian과 Sigal(1983)이 개발하고 조성호(1999)가 수정하여 완성한 자기 보고식 방어유형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16개의 방어기제를 측정하는 66개 문항으로 이루어져있다. 16개의 방어기제에 대한 요인분석에서 미성숙한 방어유형, 적응적 방어유형, 자기 억제적 방어유형, 갈등 회피적 방어유형의 4개 요인이 추출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미성숙한 방어기제와 성숙한 방어기제를 측정하기 위해, 미성숙한 방어유형 중 행동화, 투사, 분열을 반영하는 5개 문항과 적응적 방어유형 중 유머와 승화를 반영하는 5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계은주(2001)의 연구에서 모든 요인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가 .74에서 .79의 범위에 속했다. 본 연구에서는 미성숙한 방어유형의 내적 합치도가 .65, 성숙한 방어유형의 내적 합치도가 .60이었다. 본 연구에서의 다소 낮은 내적 합치도는 전체 문항을 사용하지 않은 데서 비롯된 것으로 여겨지나, 이는 허용할 만한 기준에 속한다(Nunally & Bernstein, 1994).

자기안정성 척도(Stability of Self Scale: SSS)

시간과 상황에 걸친 자기개념 및 자아존중감의 안정성을 측정하기 위해, Rosenberg(1979)가 개발하고 양현정(2002)이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자기안정성 척도는 총 5문항으로 피험자 스스로 4점 척도 상에서 자기 이미지의 안정성을 평정하도록 되어 있는 자기보고식 검사이다. 양현정(2002)의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76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83으로 나타났다.

자기개념 명료성 척도(Self-Concept Clarity Scale: SCCS)

자기개념에 대한 명확성과 시간적 안정성을 측정하기 위해 Campbell 등(1996)이 개발하고 이수현(2005)이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1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척도 상에서 각 문항에 동의하는 정도를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수현(2005)의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83이었고, 본 연구에서 또한 .83으로 나타났다.

분열형 성격장애 척도 단축형(Schizotypal Personality Questionnaire-Brief: SPQ-B)

정신증적 증상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Raine와 Benishay(1995)가 개발하고 윤선아(2010)가 번안하고 타당화한 한국판 분열형 성격장애 척도-단축형을 사용하였다. 분열형 성격장애 척도 단축형은 Raine(1991)이 개발한 분열형 성격장애 척도(Schizotypal Personality Questionnaire: SPQ)에서 선별된 22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한국판 단축형 척도에서도 원저자가 주장한 세 개 요인(인지-지각 결함, 대인관계 결함, 기능 와해)이 확인되었다. 윤선아(2010)의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가 .76이었고, 본 연구에서 역시 .80의 양호한 내적 합치도를 보였다.

www.kci.go.kr

정적 정서 및 부적 정서 척도(Positive and Negative Affect Schedule: PANAS)

정적 정서 및 부적 정서 척도는 Watson, Clark과 Tellegen(1998)에 의해서 개발된 것으로,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라는 독립된 두 차원으로 구분하여 정서를 평가한다. 감정이나 기분을 묘사하는 20개의 형용사(예: 열정적인, 괴로운)로 구성되어 있으며, 피검자가 5점 척도 상에서 현재를 포함한 지난 1주일 간의 정서상태를 응답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현희, 김은정, 이민규(2003)가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는데,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84(정적 정서), .87(부적 정서), 그리고 .84(전체)로 보고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내적 합치도가 .91(정적 정서), .79(부적 정서)로 나타났다.

상태-특성 불안 척도(STAI: State-Trait Anxiety Inventory)

불안을 측정하기 위해 Spielberger, Gorsuch와 Lushene(1970)이 개발하고, 김정택(1978)이 번안한 상태-특성 불안 척도를 사용하였다. 상태-특성 불안 척도는 특성불안척도와 상태불안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은 4점 척도의 2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특성불안은 비교적 변하지 않는 개인의 불안 성향을 뜻하며, 상태불안은 특정 상황에서 개인이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불안의 강도를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 성향으로서의 불안을 측정하기 위해 특성불안척도만을 사용하였다. 김정택(1978)의 연구에서 특성불안척도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87이었고,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86이었다. 본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는 .90으로 나타났다.

한국판 역학연구센터 우울척도(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Depression Scale; CES-D)

역학연구센터 우울척도는 미국 정신보건연구원(NIMH)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우울증후군의 역학적 연구를 위해 개발한 것으로(Radloff, 1977), 본 연구에서는 전겸구, 최상진, 양병창(2001)이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20문항의 자기보고형 질문지이며, 각 문항에 대해 지난 일주일 동안 경험한 빈도에 따라 0점(극히 드물다, 1일 이하), 1점(가끔, 1-2일), 2점(종종, 3-4일), 3점(대부분 그랬다, 5일 이상)의 4점 척도 상에 기록하도록 되어 있다. 전겸구 등(2001)의 연구에서 .91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를 보였고, 본 연구에서 산출된 내적 합치도는 .89였다.

한국판 공격성 질문지(Aggression Questionnaire-Korean Version: AQ-K)

공격성을 측정하기 위해 Buss와 Perry(1992)가 개발하고 서수균과 권석만(2002)이 번안한 한국판 공격성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이 질문지는 신체적 공격행동(9문항), 언어적 공격행동(5문항), 분노감(5문항), 적대감(8문항)으로 구성된 4개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5점 척도로 이루어져 있다. 서수균과 권석만(2002)의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86,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81로 보고되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는 .89였다.

정서조절곤란 척도(Difficulties in Emotion Regulation Scale; DERS)

정서조절곤란을 측정하기 위해 Gratz와 Roemer(2004)가 개발하고 조용래(2007)가 번안하여 타당도와 신뢰도를 입증한 한국판 정서

www.kci.go.kr

조절곤란 척도(K-DERS)를 사용하였다. DERS는 정서조절곤란을 다차원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충동통제곤란, 정서에 대한 주의와 자각의 부족, 정서에 대한 비수용성, 정서적 명료성의 부족, 정서조절전략에 대한 접근 제한, 목표지향행동 수행의 어려움 등 6개의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Buckholdt, Parra와 Jobe-Shields(2009)는 DERS를 Thompson(1994)의 정의에 따라 3개 요인으로 구분하였는데, 정서적 자각의 부족과 정서적 명료성 부족은 '정서 모니터'로, 정서에 대한 비수용성과 정서조절 전략에 대한 접근 제한은 '정서 평가'로, 충동통제곤란과 목표지향 행동 수행의 어려움은 '정서 조절'로 범주화하였다. DERS의 각 문항은 5점 척도로 되어 있으며, 원본 DERS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93로 보고되었고(Gratz & Roemer, 2004), 본 연구에서 역시 .94로 높았다.

성인 애착 척도(Adult Attachment Scale: AAS)

애착에 대한 평가를 위해 Collins와 Read(1990)이 개발하고 김은정과 권정혜(1998)가 번안한 자기보고식 성인 애착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1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5점 척도로 평정된다. 성인 애착 척도는 의존(dependence), 불안(uneasiness), 친밀(intimacy)의 세 하위요인으로 이루어지는데, 의존 요인은 개인이 타인에게 의존할 수 있는 정도와 자신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 언제나 이용가능할 것이라는 믿음의 정도를, 불안 요인은 자신이 사랑받지 못하거나 버림받는 것에 두려워하는 정도를, 친밀 요인은 다른 사람과의 가까워짐과 친밀해짐에 대해 편안하게 느끼는 정도를 측정한다. 이 척도에서 친밀 요인과 의존 요인이 높고 불안 요인이 낮은 경우, 안정된 애착유형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성인 애착 척도(AAS)에서의 의존 하위요인과 친밀 하위요인을 병합하여 안정된 애착을 측정하고 불안 하위요인을 통해 불안정한 애착을 측정하였다. 손승연(2010)의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는 친밀-의존 차원의 경우 .78, 불안 차원의 경우 .72였다. 본 연구에서는 친밀-의존 차원과 불안 차원의 내적합치도가 모두 .72로 산출되었다.

자료분석

IPO의 신뢰도를 살펴보기 위해 내적합치도 분석, 문항-각 하위척도 총점 간 상관분석, 각 하위척도 간 상관분석을 시행하였다. 또한 성격조직화라는 개념은 성격이라는 안정적인 특성을 반영하므로, IPO가 시간의 흐름에 따른 안정성을 보이는지 확인하기 위해 4주 간의 간격을 두고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알아보았다.

다음으로는, IPO 주요 척도가 원저자들이 제안한 3요인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IPO의 요인구조를 알아보았다. 여러 경쟁적인 측정모델의 평가에 있어서, 확인적 요인분석은 탐색적 요인분석에 비해 많은 장점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Bollen, 1989). 본 연구에서는 IPO의 많은 문항수와 제한된 표본수, 그리고 일부 문항에서 발견되는 편포된 분포 등을 고려하여, 문항합산(item parceling)을 통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문항합산 기법은 다변량 분석에서 빈번하게 사용되는 측정방법으로, 둘 또는 그 이상의 문항의 합산치나 평균치를 측정지표로 사용한다. 구조방정식에서의 문항

www.kci.go.kr

합산 기법에 대해서는 구조방정식이 처음 개발된 이후부터 뜨거운 찬반논쟁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여러 방법론 연구자들은 이 기법 역시 다른 통계기법과 마찬가지로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 장점과 단점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Bandalos & Finney, 2001; Little, Cunningham, Shahar, & Widaman, 2002; Little, Rhemtulla, Gibson, & Schoemann, 2013; MacCallum, Widaman, Zhang, & Hong, 1999). MacCallum 등(1999)에 따르면, 개별 문항이 아닌 문항 합산을 측정변인으로 사용하는 것은, 추정해야 할 모수의 수가 감소한다는 점, 잔차변화량이 감소한다는 점, 표집오차가 감소한다는 점 때문에 요인구조의 안정성 측면이나 적합도 개선 측면에서 이점이 있다. 문항 합산의 구체적 방법으로는 연구자들마다 다양한 기법을 제안해왔는데, 대표적으로는 무선할당(random assignment), 문항-구성개념 균형화(item-to-construct balance), 선험적 질문지 구성법(a priori questionnaire construction) 등이 있다(Little et al., 2002). 본 연구에서는 체계적인 무선할당 기법에 해당되는 문항-구성개념 균형화 기법을 사용하여 문항을 합산하였다.

요인구조 검토를 통한 구성타당도 확인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타당도 검증이 이루어졌다. 첫 번째로, 수렴타당도(convergent validity)를 확인하기 위해, IPO의 각 하위척도와 각 하위척도와 동일 개념을 측정하는 기존 척도들 간의 상관분석이 시행되었다. 두 번째로, 성격병리와 관련된 것으로 알려진 외적인 개념들, 즉 정서 및 정서조절, 대상관계와 애착의 질을 측정하는 척도들과 IPO 하위척도들 간의 관련성을 살펴봄으로써, 준거타당도(criterion validity)를 검증하였다. 마지막으로, 구성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IPO의 각 하위척도 점수를 기준으로 신경증적 성격구조화 집단, 경계선적 성격구조화 집단, 정신증적 성격구조화 집단을 분류하여 각 성격구조화 집단별로 심리정서적 특징이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자료 분석에는 SPSS Version 20.0과 Amos 20.0이 사용되었다.

결 과

내적합치도

IPO의 각 문항이 단일개념을 측정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여 신뢰도를 분석하였고, 각 하위척도에 대해서 문항과 하위척도 간 상관, 그리고 각 하위척도 간 상관을 살펴보았다. IPO 전체 척도 및 각 하위척도들의 내적 합치도가 각 하위척도별 평균 및 표준편차와 함께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내적 합치도는 전체 척도와 3개 하위척도에서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Nunnally & Bernstein, 1994). 각 문항과 하위척도 점수 간 상관을 살펴본 결과, 원시적 방어기제 하위척도의 경우 그 범위가 .32에서 .61이었고, 정체감 혼란 하위척도의 경우 .40에서 .69이었으며, 현실검증력 손상의 경우 .41에서 .72였다. 각 하위척도 간의 상관은 다음과 같았다: 원시적 방어기제와 정체감 혼란 r=.72, p<.01; 원시적 방어기제와 현실검증력 손상 r=.65, p<.01; 정체감 혼란과 현실검증력 손상 r=.64, p<.01. 한편, IPO 총점과 각 하위척도 점수의 평균에서 성별 간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는데, 모두 유의미한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총점 $t(466)$=0.15, *ns.*; 원시적 방어기제 $t(466)$=0.40, *ns.*; 정체감 혼란 $t(466)$=-0.81, *ns.*; 현실검

www.kci.go.kr

표 1. IPO의 주요 하위척도의 평균, 표준편차 및 내적합치도

척도	전체(n=466)	남자(n=160)	여자(n=306)	Cronbach's α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원시적 방어기제	34.09(7.69)	34.83(8.13)	34.03(7.46)	.81
정체감 혼란	50.24(11.33)	49.81(11.87)	50.70(11.05)	.89
현실검증력 손상	38.18(10.22)	38.33(11.32)	38.11(9.59)	.90
IPO 총점	122.64(125.80)	122.47(27.59)	122.84(23.85)	.94

증력 손상 $t(466)=0.22$, *ns*.

검사-재검사 신뢰도

IPO의 시간적 안정성을 살펴보기 위해,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측정하였다. 참가자들 중 119명에 대해 4주 간격으로 IPO를 재실시한 결과, 전체 척도의 검사-재검사 상관은 .87이었다. 각 하위척도의 검사-재검사 상관은 다음과 같다: 원시적 방어기제 $r=.87$, 정체감 혼란 $r=.77$, 현실검증력 손상 $r=.84$. IPO 총점 및 모든 하위척도의 검사-재검사 신뢰도가 .75이상으로, IPO가 시간에 따른 안정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IPO 주요 척도의 요인구조

IPO 주요 척도의 요인구조를 확인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시행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의 시행에 앞서, IPO가 측정하고자 하는 구성개념의 특성 상 IPO는 편포된 분포를 보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 문항의 왜도(skewness) 및 첨도(kurtosis)의 확인, 그리고 Kolmogorov-Smirnov 검증과 Shapiro-Wilk 검증을 통해, 분포의 정규성을 확인해 보았다. 왜도가 2이하, 첨도가 7이하일 때 분포가 정규성을 가진다고 알려져 있으며, Kolmogorov-Smirnov 검증과 Shapiro-Wilk 검증에서 영가설이 기각되지 않아야 정규성이 확인된다(West, Finch, & Curran, 1995). 본 연구에서 수집된 IPO 자료를 확인해본 결과, 두 개의 문항에서 왜도가 기준치를 벗어났고(45번, 53번), Kolmogorov-Smirnov 검증과 Shapiro-Wilk 검증에서 영가설이 기각되어, IPO 자료가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에서의 표본 크기가 문항수에 비해 작은 데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으나, 일단 수집된 자료에서 일부 문항의 비정규성이 관찰되므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이에 더해, IPO의 많은 문항수와 제한된 표본수를 함께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문항합산을 통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문항합산의 구체적인 기법으로는 각 요인에 해당하는 문항들이 체계적인 방식으로 무선적으로 할당될 수 있는 문항-구성개념 균형화 기법을 적용하였다. 즉, 각 하위척도에 대해 요인수를 1로 지정한 후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높은 부하량을 갖는 문항과 낮은 부하량을 갖는 문항을 결합시키는 방식을 반복하여 각 요인 당 5개의 문항합산군을 도출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가장 먼저 각 요인에서 가장

www.kci.go.kr

높은 부하량을 갖는 문항과 가장 낮은 부하량을 갖는 문항을 결합시키고, 다음으로 두 번째로 부하량이 높은 문항과 두 번째로 부하량이 낮은 문항을 결합시킨다. 하나의 하위 척도에 속하는 문항들이 다 합산될 때까지 이러한 방식을 반복함으로써 문항합산군이 도출된다. 이러한 방식은 체계적인 무선할당이 확보될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

이를 토대로 다음 3개의 모델이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평가되었다. 1요인 모델은 모든 문항합산군이 하나의 공통된 요인에 부하되는 단일요인 모델이다. 2요인 모델은 IPO 3개 하위요인 중 원시적 방어기제 하위요인과 정체감 혼란 하위요인이 하나의 요인을 이루고 현실검증력 손상 하위요인이 다른 요인을 이루는 모델이다. 2요인 모델은 Kernberg의 이론에서 원시적 방어기제와 정체감 혼란이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고 현실검증력이 다른 두 개의 하위요인과는 보다 명확하게 구분되는 측면을 측정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일부 선행연구 결과(Lenzenweger et al., 2001; Smits et al., 2009)를 고려하여 설정되었다. 마지막으로 3요인 모델은 원래 제안된 3개 하위요인으로 이루어진 모델이다. 분석 결과, 1요인 모델은 적합도가 좋지 않았고, 2요인 모델과 3요인 모델을 비교했을 때 3요인 모델이 보다 자료에 잘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이자승 차이검증을 통해서도 2요인 모델에 비해 3요인 모델이 보다 적합한 것으로 밝혀졌고($\Delta\chi^2(2, N=466)=119.394$, $p<.001$), 다른 적합도 지수를 비교했을 때에도 3요인 모델의 적합도가 더 양호하였다. 표 2에 여러 모형들의 적합도가 제시되어 있으며, 그림 1에 3요인 모델이 제시되어 있다.

표 2. IPO 주요 척도에 대한 여러 경쟁 모형들의 적합도

모델	χ^2	*df*	TLI	CFI	RMSEA
1요인 모델	763.782	90	.802	.830	.128 (.120-.137)
2요인 모델	400.650	89	.907	.921	.088 (.079-.096)
3요인 모델	281.256	87	.941	.951	.070 (.061-.0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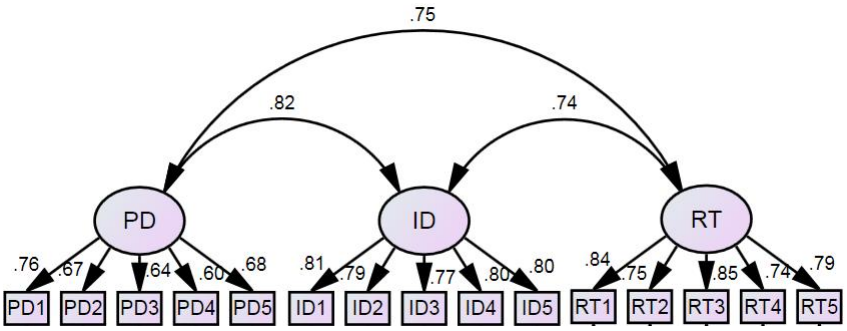

그림 1. IPO 주요 하위척도의 3요인 모델

주. PD: 원시적 방어기제, ID: 정체감 혼란, RT: 현실검증력 손상

www.kci.go.kr

더 나아가, 측정변인과 잠재변인 간의 관련성, 그리고 잠재변인 간의 관련성을 살펴봄으로써, IPO 주요 척도 3요인에 대한 수렴타당도와 변별타당도를 검증해보았다. 수렴타당도의 경우, 측정변인에서 잠재변인에 이르는 표준화 요인부하량이 만족스럽게 나타나고, 개념신뢰도(construct reliability: CR)와 평균분산추출지수(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가 각각 수용기준치 .7, .5 이상일 때, 수렴타당도가 지지될 수 있다(Fornel & Larcker, 1981; Nunnally& Bernstein, 1994). 분석 결과, 표 3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모든 표준화 요인부하량이 .60 이상으로 만족스럽게 나타났고, 개념신뢰도(CR)가 .91-.96으로 기준치보다 높았으며, 평

표 3. 표준화 요인부하량, 개념신뢰도(CR), 평균분산추출지수(AVE)를 통해서 본 IPO 주요 척도의 수렴타당도

	경로	B	SE	C.R.	개념신뢰도	평균분산추출지수
PD	→ PD 1	.76			.91	.68
	→ PD 2	.67	.07	13.68		
	→ PD 3	.64	.07	13.11		
	→ PD 4	.60	.08	12.29		
	→ PD 5	.68	.06	14.04		
ID	→ ID 1	.81			.95	.81
	→ ID 2	.79	.05	18.83		
	→ ID 3	.77	.06	18.23		
	→ ID 4	.81	.05	19.18		
	→ ID 5	.80	.06	18.89		
RT	→ RT 1	.84			.96	.83
	→ RT 2	.75	.04	18.31		
	→ RT 3	.85	.04	22.15		
	→ RT 4	.74	.05	18.14		
	→ RT 5	.79	.05	19.60		

주. PD: 원시적 방어기제, ID: 정체감 혼란, RT: 현실검증력 손상

표 4. 평균분산추출지수(AVE)를 통해서 본 IPO 주요 척도의 변별타당도

	원시적 방어기제	정체감 혼란	현실검증력 손상
원시적 방어기제	**.68***		
정체감 혼란	.67c	**.81***	
현실검증력 손상	.56c	.55c	**.83***

주. * 평균분산추출지수(AVE), c: 요인간 상관의 제곱.

www.kci.go.kr

균분산추출지수(AVE)도 .68-.83으로 모두 기준치보다 높아, 수렴타당도가 검증되었다. 변별타당도의 경우, 각 잠재변인의 평균분산추출지수가 잠재변인 간의 상관계수 제곱보다 크게 나타날 때 변별타당도가 확보될 수 있다(Fornel & Larcker, 1981). 본 연구에서는 표 4에서와 같이 대각선에 있는 3개 잠재변인의 평균분산추출지수가 대각선 하단에 다른 결정계수보다 크게 나타나 IPO 주요 3개 척도의 변별타당도가 양호한 것으로 밝혀졌다.

수렴타당도: 방어기제, 자기안정성, 정신증과의 연관성

IPO의 주요 3개 하위척도의 수렴타당도를 확인하려는 목적으로, 하위척도와의 동일 개념을 측정하면서도 타당도와 신뢰도가 양호한 것으로 밝혀진 기존 척도들과의 관련성을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원시적 방어기제, 정체감 혼란, 현실검증력 손상과 각각 연관이 있는 개념인 방어유형 척도, 자기개념 불명료성 척도 및 자기불안정성 척도, 분열형 성격장애 척도와 IPO 하위척도들 간의 상관분석을 시행하였다. 표 5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방어기제 관련 척도 중 미성숙한 방어기제는 IPO 3개 하위척도 모두에서 유의미한 정적인 상관을 보였는데, 원시적 방어기제 하위척도와의 상관이 가장 높았다. 성숙한 방어기제는 IPO 3개 하위척도 모두에서 부적인 상관을 보였지만 유의미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자기개념 관련 척도 중 자기개념 불명료성과 자기불안정성이 IPO 3개 하위척도에서 모두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는데, 정체감 혼란 하위척도와의 상관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분열형 성격특성 척도는 IPO 3개 하위척도에서 모두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고, 현실

표 5. IPO 주요 하위척도와 방어기제, 자기안정성, 정신증 간의 상관

관련 척도	IPO		
	원시적 방어기제	정체감 혼란	현실검증력 손상
	방어기제 관련 척도		
성숙한 방어기제	-.08	-.06	-.02
미성숙한 방어기제	.49**	.46**	.39**
	자기 안정성 관련 척도		
자기개념 불명료성	.52**	.69**	.55**
자기 불안정성	.40**	.57**	.39**
	정신증 관련 척도		
분열형 성격특성	.42**	.55**	.60**
인지-지각 결함	.33**	.39**	.50**
기능 와해	.34**	.43**	.49**
대인관계 결함	.32**	.48**	.44**

주. $^{**}p<.01$.

www.kci.go.kr

검증력 손상 하위척도와의 상관이 가장 높았다. 분열형 성격특성 척도는 인지-지각 결함, 기능 와해, 대인관계 결함의 3개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3개 요인과 IPO 하위요인 간의 관련성을 살펴본 결과, 인지-지각 결함과 기능 와해는 IPO 하위척도 중 현실검증력 손상에서 가장 높은 상관을 보였고, 대인관계 결함은 정체감 혼란에서 가장 높은 상관을 나타냈다.

준거타당도: 정서, 정서조절 및 애착과의 연관성

IPO 주요 척도의 준거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IPO 주요 3개 하위척도와 관련된 외적 변인들을 측정하는 척도들 간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상관분석 결과가 표 6에 제시되어 있다.

정서 관련 척도 및 정서조절 척도와의 상관은 다음과 같다. 정적 정서 및 부적 정서 척도와 IPO 하위척도들 간의 상관을 분석한 결과, 표 6에서와 같이, 모든 IPO 하위척도들은 부정 정서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긍정 정서와는 부적 상관을 보였으나 유의미하지 않았다. 또한 부정 정서를 더욱 세분화하여, 우울, 특성 불안, 공격성 등의 정서를 측정하고, 이 측정치와 IPO 하위척도들 간의 상관을 분석하였는데, IPO 하위척도들은 우울, 특성 불안, 공격성과 모두 유의미한 정적 상

표 6. IPO 주요 하위척도와 정서, 정서조절곤란, 애착 간의 상관

관련 척도	IPO		
	원시적 방어기제	정체감 혼란	현실검증력 손상
		정서 관련 척도	
긍정 정서	-.07	-.16	-.09
부정 정서	.46**	.47**	.39**
불안	.42**	.49**	.45**
우울	.42**	.54**	.40**
공격성	.56**	.57**	.52**
		정서조절 관련 척도	
정서 조절 곤란	.51**	.57**	.51**
정서모니터	.35**	.38**	.35**
정서평가	.49**	.54**	.50**
정서조절	.45**	.50**	.42**
		애착 관련 척도	
안정 애착	-.36**	-.48**	-.39**
불안정 애착	.46**	.55**	.43**

주. **p<.01

www.kci.go.kr

관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더해, 성격병리를 측정하는 IPO가 정서 조절의 어려움과도 관계를 가지는지 알아보았다. 그 결과, IPO 하위척도들과 정서조절곤란 척도 간에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발견되었다. 정서조절곤란 척도의 하위요인들과의 관련성을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정서모니터, 정서평가, 정서조절의 모든 하위요인에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는데, 정서모니터 하위요인보다는 정서평가 및 정서조절 하위요인과의 관련성이 더 컸다.

IPO가 측정하는 개념은 건강하지 못한 대상관계 및 불안정 애착과 관련이 있는 것이므로, 이를 확인하기 위해 애착 유형과 IPO 간의 관계를 알아보았다. 예견되는 대로,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이, IPO의 모든 하위 척도에서 안정 애착과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이 나타났고, 불안정 애착과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구성타당도: 성격조직화 수준에 따른 심리정서적 특성의 차이

Kernberg(1975, 1984)의 이론에 따르면, 성격조직화는 신경증적 성격조직화, 경계선적 성격조직화, 정신증적 성격조직화의 3개 수준으로 분류될 수 있는데, 이러한 성격조직화 수준의 분류는 방어기제의 수준, 정체성 통합의 정도, 현실검증력을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신경증적 성격조직화를 가진 사람들은 원시적 방어기제가 아닌 보다 성숙한 방어기제를 사용하며 정체성이 잘 통합되어 있고 현실검증력에 문제를 보이지 않는다. 반면에 경계선적 성격조직화의 경우 현실검증력에는 손상을 보이지 않지만 정체성 통합이 잘 이루어져 있지 않고 그 결과 원시적인 방어기제에 의존한다. 마지막으로 정신증적 성격조직화는 세 가지 영역에서 모두 손상을 보인다. 세 가지 성격조직화 수준에서 신경증적 성격조직화가 가장 건강한 수준이며, 경계선적 성격조직화가 그 뒤를 따르고, 정신증적 성격조직화가 가장 많은 손상을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IPO가 Kernberg의 성격병리 이론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IPO 3개 하위척도 점수에 따라 신경증적 성격조직화, 경계선적 성격조직화, 정신증적 성격조직화를 분류하고, 이 세 집단의 전반적인 심리정서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우선 본 연구의 참가자들이 비임상집단인 점을 고려하여 1 표준편차와 -1 표준편차를 기준으로 집단을 분류하였다. 이러한 분류 기준은 지나치게 허용적이나, 본 연구에서는 IPO가 Kernberg의 이론 내에서의 개념적 관련성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예비적 연구의 일환으로 이러한 분류를 통한 집단 차이 분석을 시도해 보았다. 원시적 방어기제와 정체감 혼란, 현실검증력 손상의 3개 하위척도가 모두 -1 표준편차 이하인 경우를 신경증적 성격조직화 집단으로, 원시적 방어기제와 정체감 혼란이 1 표준편차 이상이고 현실검증력 손상이 -1 표준편차 이하인 경우를 경계선적 성격조직화 집단으로, 모든 하위 척도가 1 표준편차 이상인 경우를 정신증적 성격조직화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그 다음으로 각 집단이 심리정서적 특성에서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았다.

ANOVA를 통한 집단 차이 분석 결과가 표 7에 제시되어 있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긍정 정서와 성숙한 방어기제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심리정서적 특성에서 신경증적 성격조직

www.kci.go.kr

화와 경계선적 성격조직화, 정신증적 성격조직화가 집단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Scheffe 사후분석을 통해 어떤 집단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았는데, 대부분의 심리정서적 특성에서 경계선적 성격조직화 집단과 정신증적 성격조직화 집단은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이 두 집단은 신경증적 성격조직화 집단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공격성과 정서조절곤란, 미성숙한 방어기제, 자기개념 불명료성의 경우, 신경증적 성격조직화 집단, 경계선적 성격조직화 집단, 정신증적 성격조직화 집단 순서로 평균이 높아졌으나, 경계선적 성격조직화 집단과 정신증적 성격조직화 집단의 평균차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안정애착의 경우, 신경증적 성격조직화 집단이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고 다른 두 집단과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으나, 경계선적 성격조직화 집단과 정신증적 성격조직화 집단에서 안정애착 점수

표 7. 성격조직화 수준에 따른 심리정서적 특성의 차이

관련 척도	NPO	BPO	PPO	*F*	Scheffe
	평균				
			정서 관련 척도		
긍정 정서	28.46	26.94	25.72	1.23	
부정 정서	19.12	32.31	31.00	50.38*	NPO < BPO, PPO
불안	41.69	57.56	53.19	43.08*	NPO < BPO, PPO
우울	37.09	51.50	50.72	39.49*	NPO < BPO, PPO
공격성	62.21	83.50	85.58	59.95*	NPO < BPO, PPO
			정서조절 관련 척도		
정서 조절 곤란	73.29	104.19	108.69	51.31*	NPO < BPO, PPO
			애착 관련 척도		
안정 애착	39.97	31.31	34.00	26.06*	NPO > BPO, PPO
불안정 애착	13.56	19.50	19.17	41.34*	NPO < BPO, PPO
			방어기제 관련 척도		
성숙한 방어기제	6.00	8.34	8.00	1.22	
미성숙한 방어기제	7.63	10.33	11.14	8.34*	NPO < BPO, PPO
			자기 개념 관련 척도		
자기개념 불명료성	30.11	40.44	40.62	42.38*	NPO < BPO, PPO
자기불안정성	10.95	14.88	14.56	36.01*	NPO < BPO, PPO
			정신증 관련 척도		
분열형 성격특성	5.91	9.56	13.11	50.69*	NPO < BPO < PPO

주. NPO: 신경증적 성격조직화, BPO: 경계선적 성격조직화, PPO: 정신증적 성격조직화, *p<.05.

www.kci.go.kr

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분열형 성격특성의 경우에는 가설과 일관되게 신경증적 성격조직화 집단이 가장 낮은 점수, 경계선적 성격조직화 집단이 그 다음 높은 점수, 정신증적 성격조직화 집단이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논 의

성격장애 및 성격병리의 차원적 분류체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Kernberg가 제안한 성격조직화 이론은 성격장애 및 성격병리를 차원적인 연속선 상에서 이해하는데 유용한 개념을 제공해준다. 그러나 성격조직화라는 개념을 연구에 혹은 임상 장면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 개념에 대한 타당한 측정과 경험적 검증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격조직화를 측정하는 도구인 IPO의 심리측정적 속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IPO의 내적 합치도는 만족스러운 수준을 보였으며, 문항-하위척도 총점 간 상관과 하위척도 간 상관도 높게 나타났다. 이는 IPO의 양호한 신뢰도를 반영하는 결과로, IPO는 일관성 있게 구성개념을 측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성격조직화라는 개념은 시간이 흘러도 변화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성격 관련 특성이기 때문에, IPO는 시간적 안정성을 보여야 한다. 이는 IPO가 4주 간의 간격에서 높은 검사-재검사 상관을 보였던 것을 통해 확인되었다.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IPO의 요인구조를 살펴본 결과, 원시적 방어기제, 정체감 혼란, 현실검증력 손상으로 이루어진 3요인 모델이 가장 적합한 모델로 나타났다. 또한, 표준화 요인부하량, 개념신뢰도, 평균분산추출지수 등을 통해 측정변인과 잠재변인 간의 관계 및 잠재변인들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측정항목들이 구성개념을 일관되게 잘 측정하고 있고, 하위요인 간에 독립성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IPO 주요 3개 척도의 수렴타당도와 변별타당도도 검증되었다. 이는 IPO가 Kernberg(1976, 1984)가 성격병리 및 성격장애 이론에서 제안한 개념들을 잘 측정하고 있는 도구임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한편, 본 연구에서 3요인 구조가 지지되었지만, 원시적 방어기제와 정체감 혼란은 선행 연구들에서와 같이 높은 상관을 보였다. 이처럼 두 개념은 밀접하게 관련된 개념이지만, 각각을 분리시키는 것이 Kernberg의 이론을 더욱 명료하게 이해하는 데 유용하다. 즉, 원시적 방어기제와 정체감 혼란이라는 두 개념을 분리함으로써, 심각한 성격병리 혹은 경계선 성격조직화의 발달 경로라는 병인론적 측면, 그리고 심각한 성격병리를 가지거나 경계선 성격조직화 수준에 속하는 사람들이 삶에서 나타내는 역기능이나 증상이라는 결과적 측면을 보다 이해하기 쉽다. 원시적 방어기제라는 개념을 통해, 초기 환경에서 공격성을 비롯한 부정적 정서가 강렬한 경우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의 적극적인 해리와 분리가 심리적 생존에 필수적일 수 밖에 없는 발달적 이유, 그리고 이후의 삶에서 이와 같은 방어기제를 경직되게 사용하면서 겪게 되는 정서적 어려움과 대인관계 문제를 추론할 수 있다. 정체감 혼란이라는 개념을 통해서는, 경험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이 통합되지 못해 통합된 자기표상과 대상표상을 획득하지 못하는 병리적인 발달적 과정, 그리고 이로 인해 “정상적인 자

www.kci.go.kr

존감, 자기향유, 일과 가치로부터 즐거움을 이끌어낼 수 있는 역량, 삶을 위한 열정"이 손상된 현재의 삶(Kernberg & Caligor, 2005, p. 121)을 이해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또한 원시적 방어기제, 정체감 혼란, 현실검증력 손상이라는 IPO 하위 척도들 각각의 수렴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유사한 개념을 측정하면서도 타당도와 신뢰도가 잘 확립된 기존 척도들과 IPO 하위척도들 간의 상관을 알아보았다. 원시적 방어기제 하위척도, 정체감 혼란 하위척도, 현실검증력 손상 하위척도는 각각 미성숙한 방어기제, 자기불안정성 및 자기개념 비명료성, 분열형 성격특성과 유의한 정적 관계를 보였다. 이는 IPO의 양호한 수렴타당도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이에 더해 본 연구는 IPO 3개 하위척도와 이와 이론적으로 관련된 다른 외적 개념을 측정하는 척도들 간의 관련성을 살펴봄으로써 IPO의 준거타당도를 확인하였다. 우선, 성격병리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개념들, 즉 우세한 부정 정서, 그리고 정서조절곤란, 불안정 애착과 IPO 간의 관계를 알아보았고, 부적 정서를 세분화하여 공격성과 불안, 우울과의 관계도 살펴보았다. 예상했던 대로 IPO 하위척도들은 부정 정서, 정서조절곤란, 불안정 애착, 공격성, 불안 및 우울과 모두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는 Kenrberg의 성격조직화 이론을 경험적으로 지지하는 결과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심각한 성격병리에서는 공격성의 문제가 우세하고, 만성적인 우울감과 낮은 불안 내성도 특징적이다. 또한 경계선 성격조직화는 정서에 있어서 좋음과 나쁨이 통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극단적인 정서를 오가는 정서조절곤란의 문제를 보이고, 대상표상에 있어서도 통합이 이루어져 있지 않아 친밀한 관계 및 애착에서의 불안정성도 만연되어 있다. 이론적으로 관련된 개념들과 IPO 하위척도들 간의 유의미한 관계는 IPO가 성격조직화를 잘 측정하고 있는 도구임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구성타당도를 확인하려는 목적으로 각 성격조직화 집단의 심리정서적 특성의 차이를 알아보았다. Kernberg의 이론에 근거하면, 신경증적 성격조직화에서 경계선적 성격조직화, 정신증적 성격조직화 수준으로 갈수록 기능 수준이나 적응 수준이 낮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부분의 심리정서적 특성에서 신경증적 성격조직화 집단과 경계선적 성격조직화 집단은 예상되는 방향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지만, 경계선적 성격조직화 집단과 정신증적 성격조직화 집단 간의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에서의 참가자가 비임상 집단이라는 데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 적응 수준이나 기능 수준이 비교적 양호한 대학생 참가자들의 특성 상 현실검증력 손상 척도의 문항에서 높은 점수를 보이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고, 그 결과 경계선적 성격조직화 집단과 정신증적 성격조직화 집단의 차이가 크지 않았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신경증적 성격조직화 집단과 경계선적 및 정신증적 성격조직화 집단 간의 심리정서적 특성의 차이를 보여준 본 연구의 결과는 Kernberg의 성격병리 이론이 가정하는 개념들 간의 관련성, 혹은 IPO에 내재되어 있는 개념들 간의 상호적 관계를 지지해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비임상 표본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한계를 갖는다. 성격조직화라는 개념이 성격장애 및 성격병리에 대해서 정상과 비정상을 질

www.kci.go.kr

적으로 구분하지 않는 가정을 가지는 차원적 분류체계에 기초해 있다는 점, 성격장애 연구에서 비임상군 또한 연구대상으로 포함해야 한다는 제안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성격병리 관련 척도를 비교적 기능 수준이 높은 비임상집단에서 타당화함으로써 해당 척도를 다양한 임상 장면의 여러 성격발달 수준을 나타내는 사람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비임상 표본이라는 연구대상은 심각한 제한점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PO의 많은 문항들이 심각한 성격병리를 측정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본 연구 결과가 성격장애 집단을 비롯한 임상 집단에서도 일반화될 수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임상 집단과 비임상 집단에서 모두 동일한 요인구조를 보이는지 직접적으로 확인함으로써, IPO가 측정하는 성격조직화라는 개념이 모든 집단에 적용될 수 있는 성격병리 심각도라는 차원을 반영하는지 알아보아야 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신경증적 성격조직화 집단, 경계선적 성격조직화 집단, 정신증적 성격조직화 집단을 구분하기 위해 1 표준편차와 -1 표준편차이라는 집단 구분 기준점을 사용했는데, 이러한 집단 간의 차이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추후 임상집단에서 보다 보수적인 기준점을 통해 확인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작은 표본 크기를 고려하여 문항합산을 통한 합산군-단위 확인적 요인분석(parcel-level CFA)을 시행했는데, 이러한 방법을 통한 분석은 각 문항들이 요인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는 데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각 문항합산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요인구조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문항-구성개념 균형화 기법을 통해 철저하고 체계적인 무선할당을 시도했다는 점은 이러한 제한점을 일부 보완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추후 연구에서는 IPO의 많은 문항수에 적합한 충분한 크기의 표본에서 각 문항을 기준으로 하는 문항-단위 확인적 요인분석(item-level CFA)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셋째, 자기보고식 질문지를 통해 추상적인 심리구조와 심리과정에 대한 정보를 알아내는 것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 이는 자기보고식 질문지를 통해 복잡한 심리적 구성개념을 측정하고자 하는 IPO에 내재한 한계점일 수 있다. 특히, 심각한 성격병리 환자의 경우 자신의 상태에 대한 내성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기보고식 질문지에서 자신의 상태를 정확하게 보고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IPO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보다 철저히 검토하기 위해서는 IPO와 임상적 면접 간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성격조직화가 정신역동적 대상관계 이론에 기반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이론에 대해 지식이 풍부하고 숙련된 임상가의 면접을 통한 평가와 IPO 간의 관련성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본 연구에서의 검사-재검사 신뢰도의 시간 간격이 지나치게 짧은 것일 수 있다. 본 연구는 4주라는 짧은 간격을 두고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확인하였으나, Lenzenweger 등(2001)이 언급한 바 있듯이 IPO는 성격 및 성격병리와 관련된 개념이므로 보다 장기적인 시간적 안정성이 밝혀져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IPO의 내적 일관성, 시간적 안정성, 요인구조, 관련 척도들과의 관련성, IPO 내의 구성개념들 간의 관련성 등을 통해 확인되는 양호한 신뢰도와 타당도는 IPO가 성격조직화 개념의 유용한 측정도구임을 보여준다. 특히, 본 연구의 결과

www.kci.go.kr

는 IPO가 성격병리의 전반적인 특성들을 포괄적으로 반영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앞서 언급했듯, DSM-5 성격장애 대안모델은 성격장애를 포괄하는 핵심 개념으로 정체성과 자기방향성, 친밀감과 공감 등에서의 손상을 제안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 IPO와 유의미한 관련성을 보인 외적인 변인들, 그리고 IPO의 요인구조에서 확인된 구성개념들은 이러한 측면을 잘 반영한다. 따라서 IPO를 통한 성격조직화의 측정은 성격장애를 차원적으로 이해하는 데 있어서 성격병리에 대한 객관적 측정치를 제공해줌으로써 성격장애 및 성격병리의 연구와 임상 실무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계은주 (2001). 특성불안과 우울수준에 따른 자아방어기제 사용.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김은정, 권정혜 (1998). 우울 증상과 대인관계 취약성: 성인기 애착관계 형성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7, 139-153.

김정택 (1978). 특성불안과 사회성과의 관계: Spielberger의 STAI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손승연 (2010). 성인애착과 원하지 않는 성관계 응낙의 관계: 자아존중감과 성적자기주장의 매개효과.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서수균, 권석만 (2002). 한국판 공격성 질문지의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1, 487-501.

양현정 (2002).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일상적 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의 상호작용 효과.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윤선아 (2010), 한국판 분열형 성격장애 척도-단축형(Schizotypal Personality Questionnaire -Brief: SPQ-B)의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9, 491-504.

이수현 (2005). 자기복잡성과 자기개념 명료성이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이현희, 김은정, 이민규 (2003). 한국판 정적 정서 및 부적 정서 척도의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2, 935-946.

전겸구, 최상진, 양병창 (2001). 통합적 한국판 CES-D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6, 59-76.

조성호 (1999). 한국판 방어유형 질문지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과 심리치료, 11, 115-137.

조용래 (2007). 정서조절곤란의 평가: 한국판 척도의 심리측정적 속성.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8, 1015-1038.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00).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4th ed., test revision). Washington, DC: American Psychiatric Press.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5th ed.). Washington, DC: American Psychiatric Press.

Arntz, A., & Bernstein, D. (2006). Can personality disorders be changed? *Netherlands Journal of Psychology, 62,* 8-18.

Bandalos, D. L., & Finney, S. J. (2001). Item parceling issues in structural equation

www.kci.go.kr

modeling. In G. A. Marcoulides & R. E. Schumacker (Eds.), *New developments and techniques in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pp. 269-296).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Inc.

Berghuis, H., Kamphuis, J. H., Boedijn, G., & Verheul, R. (2009). Psychometric properties and validity of the Dutch Inventory of Personality Organization (IPO-NL). *Bulletin of the Menninger Clinic, 73,* 44-60.

Bond, M., Gardner, S., Christian, J., & Sigal, J. (1983). Empirical study of self-rated defense styles.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40,* 333-338.

Bollen, K. A. (1989). *Structural equations with latent variables.* New York: Wiley.

Buckholdt, K. E., Parra, G. R., & Jobe-Shields, L. (2009). Emotion regulation as a mediator of the relation between emotion socialization and deliberate self harm.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79,* 482-490.

Buss, A., & Perry, M. (1992). The aggression questionnai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3*, 452-459.

Campbell, J. D., Trapnell, P. D., Heine, S. J., Katz, I. M., Lavalee, L. F., & Lehman, D. R. (1996). Self-concept clarity: Measurement, personality correlations and cultural boundari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 141-156.

Clarkin, J. F., Caligor, E., Stern, B., & Kernberg, O. F. (2004). *Structured Interview of Personality Organization (STIPO).* New York: Weil Cornell Medical College.

Clarkin, J. F., Foelsch, P. A., & Kernberg, O. F. (2001). *The Inventory of Personality Organization.* White Plains, NY: The Personality Disorders Institute, Department of Psychiatry, Weil College of Medicine of Cornell University.

Clarkin, J. F., Lenzenweger, M. F., Yeomans, F., Levy, K. N., & Kernberg, O. F. (2007). An object relations model of borderline pathology. *Journal of Personality Disorders, 21,* 474-499.

Collins, N. L., & Read, S. J. (1990). Adult attachment, working models, and relationship quality in dating coupl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 644-663.

Comtois, K. A., Cowley, D. S., Dunner, D. L., & Roy-Byrne, P. P. (1999). Relationship between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and Axis I diagnosis in severity of depression and anxiety. *The Journal of Clinical Psychiatry, 60,* 752-758.

Diguer, L., & Normandin, L. (1996). *The Personality Organizations Diagnostic Form* (*PODF*). Unpublished manuscript, Université Laval, Québec.

Ellison, W. D., & Levy, K. N. (2012). Factor structure of the primary scales of the Inventory of Personality Organization in a nonclinical sample using exploratory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Psychological Assessment, 24,* 503-517.

Fonagy, P. (2000). Attachment and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Journal of the American Psychoanalytic Association, 48,* 1129-1146.

Fornel, C., & Larcker, D. F. (1981). Evaluating structural evaluations model with unobservable variables and measurement error.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18,* p. 39-50.

Gamache, D., Laverdiere, O., Diguer, L., Hebert,

www.kci.go.kr

E., Larochelle, S., & Descoteaux, J. (2009). The Personality Organization Diagnostic Form: Development of a revised version.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 197,* 368-377.

Gratz, K. L. & Roemer, L. (2004). Multidimensional assessment of emotion regulation and dysregulation: Development, factor structure, and initial validation of the difficulties of emotion regulation scale. *Journal of Psychopathology and Behavioral Assessment, 26,* 41-54.

Gunderson, J. G., Links, P. S., & Reich, J. H. (1991). Competing models of personality disorders. *Journal of Personality Disorders, 5*, 60-68.

Herr, N. R., Rosenthal, M. Z., Geiger, P. J., & Erikson, K. (2013). Difficulties with emotion regulation mediate the relationship between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symptom severity and interpersonal problems. *Personality and Mental Health, 7,* 191-202.

Igarashi, H., Kikuchi, H., Kano, R., Mitoma, H., Shono, M., Hasui, C., & Kitamura, T. (2009). The Inventory of Personality Organization: Its psychometric properties among student and clinical populations in Japan. *Annals of General Psychiatry, 8,* Article 9.

Igarashi, H., Hasui, C., Uji, M., Shono, M., Nagata, T., & Kitamura T. (2010). Effects of child abuse history on borderline personality traits, negative life events, and depression: a study among a university student population in Japan. *Psychiatry Research, 180,* 120-5.

Kernberg, O. F. (1975). *Borderline conditions and pathological narcissism.* New York: Jason Aronson.

Kernberg, O. F. (1984). *Severe personality disorders.*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Kemberg, O. F., & Caligor, E. (2005). A psychoanalytic theory of personality disorders. In J. F. Clarkin & M. F. Lenzenweger (Eds.), *Major theories of personality disorder* (2nd ed.) (pp. 106-140). New York: Guilford Press.

Kernberg, O. F., & Clarkin, J. F. (1995). *The Inventory of Personality Organization.* White Plains, NY: The New York Hospital-Cornell Medical Center.

Krueger, R. F., Markon, K. E., Patrick, C. J., & Iacono, W. G. (2005). Externalizing psychopathology in adulthood: A dimensional-spectrum conceptualization and its implications for *DSM-V*.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14,* 537-550.

Lenzenweger, M. F., Clarkin, J. F., Kernberg, O. F., & Foelsch, P. A. (2001). The Inventory of Personality Organization: Psychometric properties, factorial composition, and criterion relations with affect, aggressive dyscontrol, psychosis proneness, and self-domains in a nonclinical sample. *Psychological Assessment, 13,* 577-591.

Lenzenweger, M. F., McClough, J. F., Clarkin, J. F., & Kernberg, O. F. (2012). Exploring the interface of neurobehaviorally linked personality dimensions and personality organization in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the Multidimensional Personality Questionnaire and Inventory of Personality Organization. *Journal of Personality Disorders, 26,* 902-18.

Little, T. D., Cunningham, W. A., Shahar, G., &

www.kci.go.kr

Widaman, K. F. (2002). To parcel or not to parcel: Exploring the question, weighing the merit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9*, 151-173.

Little, T. D., Rhemtulla, M., Gibson, K., & Schoemann, A. M. (2013). Why the items versus parcels controversy needn't be one. *Psychological Methods, 18*, 285-300.

Livesley, W. J. (2003). Diagnostic dilemmas in classifying personality disorder. In K. A. Phillips, M. B. First, & H. A. Pincus (Eds.), *Advancing DSM: Dilemmas in psychiatric diagnosis* (pp. 153-190). Washington, DC: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Lowyck, B., Luyten, P., Verhaest, Y., Vandeneede, B., & Vermote, R. (2013). Levels of personality functioning and their association with clinical features and interpersonal functioning in patients with personality disorders. *Journal of Personality Disorders, 27*, 320-36.

MacCallum, R. C., Widaman, K. F., Zhang, S., & Hong, S. (1999). Sample size in factor analysis. *Psychological Methods*, *4*, 84-99.

Millon, T. (2005). An evolutionary theory of personality disorders. In J. F. Clarkin & M. F. Lenzenweger (Eds.), *Major theories of personality disorder* (2nd ed.) (pp. 221-346). New York: Guilford Press.

Nunnally, J. C, & Bernstein, I. H. (1994). *Psychometric theory* (3rd ed). New York; McGraw-Hill.

Radloff, L. S. (1977). The CES-D Scale: A self-report depression scale for research in the general population. *Applied Psychological Measurement, 1,* 385-401.

Raine, A. (1991) The SPQ: A scale for the assessment of schizotypal personality based on DSM-III-R criteria. *Schizotypal Bulletin, 17,* 555-564.

Raine, A. & Benishay, D. (1995). The SPQ-B: a brief screeing instrument for schizotypal personality disorder. *Journal of Personality Disorders, 9,* 346-355.

Rosenberg, M. (1979). *Conceiving the self.* New York: Basic Books.

Saulsman, L. M., & Page, A. C. (2004). The five-factor model and personality disorder empirical literature: a meta-analytic review. *Clinical Psychology Review, 23*, 1055-1085.

Smits, D. J. M., Vermote, R., Claes, L., & Vertommen, H. (2009). The Inventory of Personality Organization-Revised: Construction of an abridged version. *European Journal of Psychological Assessment, 25,* 223-230.

Stern, B. L., Caligor, E., Clarkin, J. F., Critchfield, K. L., Hoerz, S., Maccornack, V., Lenzenweger, M. F., & Kernberg, O. F. (2010). Structured Interview of Personality Organization (STIPO): Preliminary psychometrics in a clinical sampl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92.* 35-44.

Spielberger, C. D., Gorsuch, R. L., & Lushene, R. E. (1970). *Manual for the State-Trait Anxiety Inventory.* Palo Alto, C.A.: Consulting Psychologist Press, Inc.

Spitzer, R. L., First, M. B., Shedler, J., Westen, D., & Skodol, A. E. (2008). Clinical utility of five dimensional systems for personality diagnosis: A “consumer preference” study.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 196,* 356-374.

www.kci.go.kr

Thompson, R. A. (1994). Emotion regulation: A theme in search of definition.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9*, 25-52.

Trull, T. J., & Durrett, C. A. (2005). Categorical and dimensional models of personality disorder. *Annual Review of Clinical Psychology, 1,* 355-380.

Verreault, M., Sabourin, S., Lussier, Y., Normandin, L., Clarkin, J. F. (2014). Assessment of personality organization in couple relationships: factorial structure of the inventory of personality organization and incremental validity over neuroticism.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95*, 85-95.

Watson, D. (2005). Rethinking the mood and anxiety disorders: A quantitative hierarchical model for *DSM-V*.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14,* 522-536.

Watson, D., & Clark, L. A., & Tellegen, A. (1988).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brief measures of Positive and Negative Affect: The PANAS scal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4*, 1063-1070.

West, S. G., Finch, J. F., & Curran, P. J. (1995).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nonnormal variables: Problems and remedies. In R. Hoyle (E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Concepts, Issues and Applications* (pp. 56-75). Newbury Park, CA: Sage.

Widiger, T. A., & Clark, L. A. (2000). Toward *DSM-V* and the classification of psychopathology. *Psychological Bulletin, 126,* 946-963.

Widiger, T. A., & Samuel, D. B. (2005). Diagnostic categories or dimensions: A question for *DSM-V*.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14,* 494-504.

Zanarini, M. D., & Frankenburg, F. R. (1997). Pathways to the development of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Journal of Personality Disorders, 11*, 93-104.

원고접수일 : 2014. 08. 07.
수정원고접수일 : 2014. 12. 17.
게재결정일 : 2014. 12. 17.

www.kci.go.kr

한국심리학회지 : 임상
Th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015, Vol. 34, No. 1, 77-102

A Validation Study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Inventory of Personality Organization

Young-ran Kim **Young-ho Lee**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This report describes the psychometric properties of the primary scales of the Inventory of Personality Organization(IPO; Kernberg & Clarkin, 1995; Clarkin, Foelsch, & Kernberg, 2001), which assess Primitive Defenses, Identity Diffusion, and Impairment of Reality Testing in a nonclinical sample. Participants (N=477) completed the IPO and measures of theoretically related concept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e three IPO scales displayed adequate internal consistency and good test-retest reliability. Second,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supported a three-factor structure of the IPO (i.e., Primitive Defense, Identity Diffusion, and Impairment of Reality Testing). Third, each of the three IPO scales was associated with an immature defense mechanism, lack of self-concept clarity, and schizotypy. as well as a negative affect, aggression, anxiety, depression, emotional dysregulation, and insecure attachment. Finally, differences in psychological and emotional features were observed between a neurotic personality organization group, a borderline personality organization group, and a psychotic personality organization group. Taken together, these results demonstrate that the IPO possesses an appreciable reliability and validity.

Key words : Inventory of Personality Organization(IPO), reliability, validity, psychometric properties,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www.kci.go.kr